

방기인(放送技術人)의 제주탐방 - 15

봉성·광평오름 왕국 탐방

제주 서북부의 또 다른 오름 왕국, 애월읍 봉성과 안덕면 광평 활야에서 북남으로 대치하며 소왕국을 이루고 있는 오름들을 만나러 간다. 예전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리조트와 골프장이 오름들을 폐놓고는 그럴싸하게 만든 사람 사는 동네(리조트)를 억지로 껴안으며 자연과 친해지고자 하나 오름들은 자신의 이름 그대로의 자태로 먼저 알고 뒤돌아 앉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아무리 관광지 제주라지만 이렇게까지 오름들을 배경으로 또는 앞동산쯤으로 풍경을 즐기기 위해 사람의 정원으로 만들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이 여운을 남긴다. 어쩌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인 것을, 판에 끼어든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털어버리며 터벅터벅 탐방 나서는 오르미가 되었다. 비록 초하의 목초와 골프장 잔디가 푸름으로 마음을 달래는 주지만 모습을 잃고 정형된 곳자왈과 벵디는 처량한 자신의 모습에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른다.

바리메오름에서 보는 봉성 광평 오름군



오설록



카멜리아힐



북돌아진·괴오름, 새별오름에서 보기

북돌아진·괴·다래·폭낭오름

한라산 서쪽 자락 애월읍 봉성들에 있는 오름 왕국을 떠 올려 본다. 북돌아진오름, 괴오름, 폭낭오름, 다래오름, 검은들먹오름, 다래오름 북동쪽, 한대오름까지 7개의 오름이 같은 지도상에 한눈에 들어왔다. 웅기종기 탐방길을 이어가기도 좋아 보인다. 도상거리만도 무려 25km가 넘는다. 난산리 감굴원 농로만 따라 굽이굽이 돌고, 올레 표식을 따라 통오름, 독자봉을 넘어 삼달리 두모악 중간스탬프장을 지나고서도 이젠 끝인가 하며 해안 올레를 따라 표선해비치해수욕장까지 가는 제일 길고 지루한 올레3A코스보다도 더한 오름 탐방을 예상하지는 않았는데... 그 지루하고 고단했던 아스라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 북돌아진오름 평화로에서 삼리목장(봉성·곽지·금성) 들머리를 들어서면서 예사롭지 않은 탐방길임을 직감한다. 2.5km를 와서야 목초지 가장자리 분화구 오른쪽 자락 소나무숲 속에 감춰진 탐방길 목장 철조망을 넘었다. 폭신한 소나무 갈비를 밟으며 시작한 탐방로는 조릿대 숲길을 지나 정상으로 가까워질수록 크고 작은 잡나무들이 어울린 사이를 비집고 길을 내었다. 용암을 품은 서쪽 정상은 돌아앉은 모습 그대로 자신의 모습 북돌아진오름을 각인시키며, 평화로 건너편 시원스레 펼쳐진 봉성, 금악, 동광 일대의 전망을 보여준다. 줄기·가지가 반질반질하도록 손때 묻은 잡나무들과 손잡으며 서쪽 능선 하산길을 내려오다 일제동굴진지와 마주하고 삼나무숲 삼거리에 이르면 괴오름과 폭낭오름 탐방길을 안내한다.

평화로에서 보면 마치 커다란 북이 매달려있는 모습이며, 동쪽 주봉은 북향으로 돌아앉은 모습이고, 서쪽 봉우리는 북서향의 말굽형 굴부리와 어우러져 있는 특이한 화산체다. 표고 643m, 비고 118m로 우뚝 솟은 기암봉우리에서 뿜어 내리는 사면은 뿡뿡하게 들어선 해송과 참·잡나무류가 탐방로를 지우면 오르미는 다시 길을 만든다.

| 괴오름 북돌아진오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등산길의 괴오름이다. 삼나무숲을 지나면 얽히고설킨 잡나무들이 하늘 따먹기를 하고, 조릿대 숲은 땅

따먹기를 하면서 반기지 않는다. 정상엔 잡나무와 소나무들을 제치고 한평 남짓한 풀밭이 정상을 알려며 물 한잔 권하고, 북돌아진오름에서 나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조망권을 찾아준다. 다래오름-한대오름-삼형제오름-한라산으로 이어지는 오름 전경에 이끌리고 펼쳐진 초치만 보고 탐방 나섰다가 괴오름의 능선 자락에 갇혀 만신창이가 된 자신을 보면서 제주 곳자왈의 진수도 느낄 수 있다.

편히 배를 대고 비스듬히 누운 고양이를 닮았다고 하여 괴[고양이]오름이라고 부르니 억지를 부리면 어울린다. 옆구리를 맞댄 북돌아진오름과 건너편 폭낭오름과 삼각편대를 이루며 산체뿐만 아니라 뽕뽕한 잡목과 자연림의 울창한 식생들이 탐방로를 시가하는 모습도 서로 닮아 1막 3장의 오름 탐방에 제격이다. 높이 653.3m, 비고 103m, 북향 말굽형 분화구를 가진 화산체다.

| 다래오름 두 갈래 길은 흔히 만나는 길이지만 오늘 이 산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나와 같은 오르미가 또 있었음에 틀림없다. 길이 없으면 되돌아올 줄도 알아야 한다. 두 갈래길 중 한길은 괴오름 동쪽 사면으로 하산하여, 삼리목장을 가로질러 역새로 시작하는 삼나무방풍림을 따라 다래오름 분화구 북쪽 자락 계곡 덩굴 속에 숨겨진 탐방로를 찾아 등성이를 따라 분화구 동쪽 묘지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다면 정말 멋진 하루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초행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찾을 수 없는 길이다. 어떻게 하든 무작정 다래오름 자락에 가면 탐방로가 있을 것이고 없다면 분화구나 능선을 치고 올라가면 될 것이라 생각한 무지막지한 오르미는 다래오름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죄 없는 오름에 원망을 쏟아내나 이내 오르미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자만하지 말라. 세상일은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과 자연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만만한 인간은 몸과 마음을 고생시키고 나서야 순리를 따르게 된다. 오늘 삼각편대오름에 이어 다래오름을 탐방하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연의 일부인가를 깨닫는다. 빈틈없는 농장울타리는 단 한 곳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성못길이다. 그 길이 흔적을 지워가는 다래오름 탐방로와 통한다. 굴부리 능선을 따라 잡나무로

다래오름과 한라산

조릿대로 등산길을 번갈아 가며 길을 내주고, 손도장押印만한 풀밭 가장자리에 선 우람한 잡나무가 가지를 벌려 전망이라고 보여주며 다래오름 정상에 서 있다고 알려준다.

과거 다래낭[나무]이 많아 다래오름이라고 하나 지금은 삼나무와 소나무를 중심으로 잡목들이 우거져 있으며 사면으로 진입하는 기슭에는 조릿대들이 장악하였고 등성에는 상산나무 등 잡목이 뻗뻗하게 들어서서 오르미 아닌 일반 탐방객의 발길을 거부하고 있다. 높이 696.5m, 비고 87m, 북동향말굽형분화구.

I 폭낭오름 괴오름에서 되돌아 나와 삼거리에서 폭낭오름과 다래오름, 한대오름을 탐방하였다면 폭낭오름 분화구에 갇혀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황량한 공초삿을 이리저리 헤매지도, 다래오름을 세 번이나 오르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뚝뚝 지름길, 샛길이 있을 것이라고 잔머리를 굴려 동편 리조트경계담을 뛰어넘는 노루를 따라 폭낭오름을 치고 올라간 것은 다래오름에서의 경험을 똑같이 하게 되었다. 폭낭오름 북쪽 분화구 8부 능선 덩불 속에 갇혔다. 움푹달라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웅덩이에 풍당하고 빠진 꼴이다. 어떻게 들어갔는

지를 알아야 나올 것인데? 철장은 문이라도 있는데 땅도 하늘도 이곳이 어딘지 모른다. 절망에서의 신념은 희망이다. 잡목이 성기드니 길이 나타났다. 신기루는 북사면을 빙돌아 굽부리까지 거리 이동시켰다. 이제 등산길을 따른다. 정상은 풀밭을 깔며 쉬어가기를 권하는 여유를 준다. 8부 능선까지 이어진 남쪽 풀밭과 북쪽 목초지를 이어주는 길이 이제 편히 가라고 한다. 폭낭은 팽나무의 제주방언이다. 오름 등성이에 폭낭이 있어 불렀는데 세월 무상일까? 폭낭은 어디에 있는가? 두 산 체의 허리는 개간되었고 남동쪽 자락은 조성 잔디로 탈바꿈한지 오래다. 표고 645.5m, 비고 76m의 2개의 원추형굽부리와 북향의 낮은 말굽형 굽부리가 합쳐진 복합형 화산체로 북돌아진, 괴오름과 삼각편대를 이루며 오르미를 반겨준다. 보여주는 만큼만 보고, 이끄는 대로만 따르면 되는 오름 탐방에 오르미의 마음이 이끌면 고생길이 될 수밖에 없다.

검은들먹오름·다래오름 북동쪽

다래오름 정상부의 동쪽에서 바라볼 때 나란히 이어지는 두 산 체를 구분할 수 있으나 어느 곳을 먼저 오르든 할지라도 두 산 체를 이어 갈 경우 특별히 의식을 하기 전에는 평평하거나 약간 들어간 굽부리 정도로 여길

폭낭오름



정도로 두 개의 산 체로 뚜렷하게 파악이 안 된다. 다래오름(봉성)에서 함박재농장을 가로지르거나 바리메오름 남쪽 영함사 삼거리에서 임도를 따라 오를 수 있는 하나의 오름이 옷-알거믄들먹오름이었는데 오름 재조사로 각기 다른 독립형 화산체로 이름을 붙이면서 현재의 오름으로 불리고 있다.

| 검은들먹오름 이름값도 못하고 절 같지도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범좌자 은닉처 같은 그런 곳 영함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속세의 때가 덕지덕지 붙은 주지라는 사람의 심술이 자비와는 거리가 멀다. 고로쇠나무보다도 못한 인간을 대신해 검은들먹오름에 고마움을 전한다. 수모를 당하고 절 오른쪽 삼나무숲을 통하여 경사를 죽이며 절을 등지고 돌아왔은 검은들먹오름(알거믄들먹, 표고 712.4m, 비고 87m, 북향 말발굽 분화구)에 올랐다. 아마도 오름도 절의 그런 인간이 싫어서 돌아앉은 모양이다. 오름 탐방이라기 보다는 검은 것이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그 무엇을 찾아 나섰는데 허탈한 모습이 되었다. 숨겨진 비경이나 멋진 분화구가 있는 것도 아니요, 역사의 현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명당터 정도가 뇌리를 스치면서 기대는 헛웃음으로 날아갔다. 대단하지도 않은 오름

이면서 비밀스러움이 있고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추측이 난무하는 오름이라 정리한다.

| 다래오름 북동쪽 검은들먹오름 등성이를 따라 동쪽으로 이어진 능선은 잡나무에서 소나무로 이어지는 탐방로는 성맞길과 같이하면서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잡나무 등성한 산등성이 등산로를 따라가면 밋밋한 오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맨살의 아픈 상처를 보이며 정성도 분화구도 분간할 수 없는 다래오름 북동쪽에 오른다. 옷거믄들먹이라도 하며 표고 725.9m, 비고 40m의 동남향 말발굽 분화구의 산체다. 산담으로 잘 단장된 망자들의 안식처가 정상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명칭이 풍기는 신비스러움을 조금 이해했다.

한대오름

한라산 서부 천고지를 붉게 물들이며 겹겹이 낙엽을 쌓아 가며 숲을 살찌우고 둘레길, 임도를 따라 조림된 삼나무숲이 끊임없이 피톤치드를 공급하는 신선함이 살아 숨 쉬는 서부 최고의 전망을 펼쳐 보이는 곳이 한대오름이다. 표고 921m, 비고 36m의 원형 굴부리를 가진 스스로 깊고



그윽한 모습 전부를 드러내 놓기를 꺼리는 덩치가 큰 원추형산체!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의 신록과 단풍이 자연의 멋으로 관객(오름꾼)들을 끌어들이고 단색으로 활기찼다가 퇴색되어가는 분화구 자락은 쓸쓸한 감흥을 자아내고 야생화들은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 시절을 품미하며 한대오름의 깊고 그윽한 맛을 더해준다. 한라산 둘레길 천아숲길에서, 안전이 오름에서 송이임도, 빌레용암길, 활엽잡목 곳자왈과 조릿대가 만났을 가린 채 길을 인도해주지만 자연의 길속 주인공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색길로 들어서서 외삼촌 묘를 찾아가게 되니 너무 감상에 빠지지는 말자. 정상에 오르면 그 모든 감성을 토해낼 수 있으니 말이다. 오름 동쪽 자락 높에 도착하면 희열이 벅차오르고 빙글빙글 원형 무대에 서 있는 몸치는 일류 무용수가 된다. 가장자리에 빙 둘러앉은 관객들-조릿대도 갈채를 보내며 완만한 능선을 따라 북쪽 정상으로 이끈다. 계절 따라 탐방로에 펼쳐진 총천연색의 수목화폭을 거닐어 산등성이에 이르면 남북정상을 지키는 것은 잘 단장된 묘지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한라산 서쪽 자락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한대오름이다. 묘지가 있어 이런 조망과 사진을 촬영할 수 있기는 한데, 왜 이곳을 장지로 택했을까? 복잡한 머릿속은 발아래 펼쳐진 조망으로 단순해졌다. 아! 정말 좋구나. 한대오름! 한대오름! 정상 묘 분상에 기대어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 가늘어진 눈 사이로 가물가물 스며드는 오름 군락이 노곤함을 풀어준다.

왕이메·돛박이·괴수치오름

광평들 오름 주위로 펼쳐진 초하의 골프장과 목초지의 강렬한 푸름을 가슴속에 펼칠 수 있고 웅기종기 소곤대는 리조트들의 제주 삶을 엿볼 수 있다. 길까지 맞는 삼나무숲으로 단장된 들머리 화전길은 오름 탐방을 위한 몸풀기(1.7km)에도 적당하다.

왕이메오름 화전길을 따라 A리조트를 지나면 탐방길을 내주는 H목장과 오름 안내와 관리를 해주는 오름오름회에 감사하는 마음이면 왕이메오름을 즐길 수 있다. 안내판이 탐방객의 결정을 기다린다. 곧바로 가면 정상 등성이를 한 바퀴 돌고 굽부리까지 탐방할 수 있고 오른쪽 덩굴로 들어가면 굽부리를 탐방하고 초지와 해송, 삼나무숲을 끼고 난 산책길, 목장길을 따라가면서 계절과 함께하는 오름을 즐길 수 있다. 지금은 고사리와 산딸기가 함께 한다.

초입의 닳아 헤어진 야자매트길과 목책을 지나면 붉은 송이가 풀밭까지 안내하는데 고사리는 건물생심이고, 노루와 장끼가죽은 서로를 놀라게 한다. 정상오름길은 기이한 잡나무와 해송들이 등산화에 닳고 닳은 반질반질한 자신들의 뿌리로 길을 내주면서 탐방객들의 사뭇한 발길을 당부한다. 육백고지 정상에서는 굽부리의 풀과 울울창창한 식생이 연출하는 짙고 옅은



왕이메오름과 탐방로

녹색을 감상할 수 있고, 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봉성과 어음들에 펼쳐진 오름들이 안길 듯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다. 북돌아진, 괴, 폭낭, 다래오름 뒤로 새별, 바리메, 노꼬메오름들과 이들을 이어주는 싱싱한 푸른초원도 오름의 일부를 맡아준다. 안전줄을 따라 잡나무 사이로 난 굽부리 능선을 따르면 수직동굴 2개가 빨아들일 기세로 입을 벌리고 있다. 목방책으로 보호를 하고 있지만 몸은 주눅거린다. 조릿대와 덩굴이 용암길을 보호하고 길은 발길을 이끈다. 삼나무숲 속 갈림길은 굽부리, 산책로, 능선(입구) 탐방을 선택하는 사거리다. 굽부리는 자신을 드러내 놓고 싶지 않은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삼나무, 해송, 잡목숲으로 하늘을 가리고 덩굴과 조릿대, 억새로 바닥을 알 수 없도록 위장하고, 오르내림을 함께할 수 없도록 길을 내준 것이다. 이에 대답하는 자만이 굽부리와 함께 할 수 있다. 굽부리 풀밭엔 철 늦게 오므린 고사리가 손을 펴기 시작하고, 키 작은 나무들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굽부리 안에서 능선을 한 바퀴 조망하면 둥글고 파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햇살을 온몸으로 맞을 수 있다. 굽부리 가장자리 잡나무숲 속 오솔길 흔적은 능선탐방길과 이어지고 다시 사거리에서 능선을 따라가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내려오면 입구와 만나면서 굽부리·능선 탐방은 끝난다. 오름 탐방에서 빠질 수 없는 정상과 분화구 탐방에 더불어 오름자락을 이어주는 둘레길을 산책하면서 계절을 느끼고 자연과 대화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다. 왕이메오름 둘레길은 빈대오름 탐방 후 H목장을 지나 목장길/임도를 따라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산딸기, 고사리, 청미래 등과도 노닥거리며 함께할 수 있다.

옛날 탐라국의 삼신왕이 이곳에 와서 사흘 동안 기도를 드렸고, 옥황의 아들 문국형도령이 살았다 하여 왕이메라 전해진다. 산굽부리와 흡사한 깔대기형의 원형분화구를 중심으로 여러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가 어깨를 맞대



돛박이와 괴수치오름, 죽은대비악에서 보기

어 하나의 커다란 산체를 이루면서 92m(표고 612.4m)까지 솟아 있으며 화구주위에 작은 굴부리들로 이루어진 복합형화산체다.

| 괴수치·돛박이오름 왕이메오름 분화구를 나와 서쪽 능선을 나오면 A리조트 뒤편 광평들이 펼쳐져 있다. 철탑과 삼나무 숲길을 이정표 삼아 황금빛으로 물든 보리밭을 지나 풀밭, 덩굴 속 탐방 흔적을 찾아 따라가면 어디로 어떻게 왔는지 모르고 탐방을 마치게 된다. 정상도 분화구도 모르고 끝난 탐방로가 아쉽기는 하지만 다시 돌아가거나 탐방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탐방로는 초입부터 험난하기 이를 데 없고, 잡나무숲을 뚫고 역새를 헤쳐 사면을 겨우 오르면 등성이와 분화구 탐방길은 키를 훌쩍 넘는 수풀과 덩굴이 가슴까지 차올라 발 가는 대로 온몸으로 헤치고 힘들게 나가게 하고 있다. 그나마 해송과 삼나무가 대략의 위치를 알려주고 흔적을 이어주면서 이정표 역할을 해주니 다행이다. 등산화 앞코를 겨우겨우 확인하면서 옮겨 가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다 무를 수도 없기에 오름에 맡겨졌다. 사면과 등성과 자락을 이어가는 등산길만 돛박이와 괴수치오름을 탐방하고 있었을 것이다. 갑자기 돛박이·괴수치라는 생소한 이름을 트집 잡고 험담하면서 도전한 자신이 한없이 미워졌다. 고생 끝에 보람은 있다. 드디어 삼나무 숲이 끝맺음을 하며 만불사로 인도해준다. 경내 불자와 선문선답하면서 현세를 인식하였다. 정녕 괴수치와 돛박이오름을 탐방하거나 한 것인가? 스스로 물었으나 묵묵부답이다.

광평 중산간에 위치한 오름으로 표고 521m, 비고 51m로 분화구 형태는 복합형이다. 예전에 오름 일대에 돛박이[동백나무]가 많이 자생하였고, 돛박새, 돛박생이[동박새]가 서식했기에 돛박이라고 한다. 동서로 계곡을 맞댄 괴수치오름은 표고 558m, 비고 59m이며 원형분화구다. 오름의 유래는 광평마을 형성 당시 조가동이라는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한데서 연유하며, 고수치라는 고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름 가까이 살았다고 하여 고배기동산이라 하였고, 변형되어 괴수치로 되었고 한자로는 고소초악高小草岳이라 표기한다. 이처럼 사람과 관련된 오름이다 보니 산 체의 특성이나 모양 등도 인물에 특징지어 졌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렇게까지 완곡하게 접근을 거부하는 모습은 조씨·고씨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죽은대비악·빈네오름

남쪽 죽은대비악에서 시작해 산록남로를 건너 돛박이, 괴수치, 왕이메오름을 탐방하고 화전길 따라 빈네오름까지 탐방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낮선 길 찾아 나서는 초행자의 발길을 따라간다.

| 죽은대비악 죽은[조근,작은]대비악이라 해서 큰대비악 옆에 있는 오름은 아니다. 대비라는 선녀가 놀았다하여 붙여졌다 한다. 표고 547m, 비고 71m, 두 개의 원형봉우리를 가진 측화산이나 연결되는 순환탐방로는



죽은대비악 전경



빈네오름, 들머리에서 보기

없다. 동박이오름을 업은 만불사 오른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따라 난 삼나무숲 길을 가면 넓은 목초지에 우뚝 솟은 작은대비악을 만난다. 숲과 덩굴 사이로 난 서쪽 사면등산로를 따라 정상에 오르고 분화구를 탐방하면서 자락에 펼쳐진 목가적 풍경과 한라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제주 남서부의 탁 트인 모습은 언제나 맑고 시원한 바람은 상쾌한 기분으로 탐방의 즐거움을 안겨준다. 느린 걸음으로 쉬엄쉬엄 오르기보다는 빠르게 단숨에 올라 정상에서 거친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조망을 가슴으로 맞아보자. 동서남북의 오름들이 한꺼번에 안기는 벅찬 감동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 있다는 것에 행복해진다.

I 빈네오름 왕이메오름 정상탐방로 제1동굴을 탐방하고 남쪽 사면 소나무숲을 빠져나와 H농장목장길을 따라 입구까지 가면 빈네오름 들머리 화전로를 만난다. 북사면 카트길을 통해서 오르든 분화구 남쪽 사면을 통해 오르든 언제 적부터 주인인지는 모르지만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서글프다. 오름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묘지를 따라가는 성묘길은 그나마 남아 있는 탐방길을 헛갈리게 하며 지우개처럼 지워가고 있다. 정상은 자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니 차라리 좋겠다. 덩굴과 잡나무 숲에서나마 빈네오름 정상을 새긴다.

표고 658m, 비고 93m로 길게 이어진 두 봉우리가 남서쪽으로 침식되어 갈라진 말굽형 화구 기슭을 제외한 사면 자락은 골프장이 둘러싸고 있다. 남사면은 가파르고 서사면은 완만한 초지를 이루고 있다. 북동쪽사면 기슭은 드넓은 벌판이었으나 사람들이 자락을 자르고 나서부터 사면의 숲과 덩굴은 오르미들까지도 탐방을 거부하고 정상도 조망권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모습은 자신을 배신한 인간의 탐욕에 대한 앙갚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더 이상 상처를 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친근한 오름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남사면은 또다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 오름 이름은 봉우리 쪽 바위가 쪽진머리에 빈네[비너]를 꽃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데서 연유하고 있으며 한자로는 비너 채鉞자와 비너 잠簪자를 써서 채鉞岫, 잠鉞岫으로 표기한다.



연계 관광지

카멜리아힐 : 안덕면 상창리에 조성된 제주의 자연을 담은 동양에서 가장 큰 동백수 목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동백꽃을 비롯하여 가장 일찍 피는 동백꽃, 향기를 내는 동백꽃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500여 종 6,000여 그루의 동백나무와 함께 달콤하고 매혹적인 동백 향기에 흠뻑 취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조경수, 제주 자생식물, 모양과 색깔, 향기가 다른 다양한 꽃식물들이 사철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는 사랑과 치유의 숲 카멜리아힐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든다.



제주 문화

제주말 익히기 : **거대비수, 귀순이 먹약이우다, >글씨 많입니다, 귀와 눈이 같잖습니다.**

제주음식 [방어회] : 제주에 와서 방어회 먹을 때는 소·중방어가 아닌 대방어로 먹어야 한다. 큼직한 뱃살 한입 가득 넣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방어회의 맛과 향 그 진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남은 명이 추가 없이 대방어회를 배지근하게 먹었다면 제주 최고의 제철 맛을 즐겼네요.



제주명소[오설록] : 일구고, 가꾸고, 즐기는 곳 그곳은 오설록이다. 돌과 바람이 전부였던 제주의 버려진 땅을 세계적인 녹차 산지로 일구고, 제주라는 천혜의 자연에서 유기농법으로 차잎을 가꾸고, 문득 차 한 잔의 여유가 간절해지는 순간 좋은 사람과 함께 제주 자연과 정성을 담은 차를 즐기면서 일상에 삶의 맛을 더하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며 생활의 여유를 찾아간다.

한라산 서쪽 허리 머리목에서 영실 탐방로를 안내하는 천백도로 아래쪽에 한라산 둘레길 천아숲길과 돌오름길을 내 주고, 곳자왈과 습지를 만드는데 물길을 내어 산짐승 새들과 벗하며 참다운 오름살이를 하고 있는 의연한 오름들로부터 훈수訓手 받으며 인생을 한 수 배운다. ㉠